수능 뒤풀이 불교문화공간 '활짝'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댄스 경연대회 모습.

"수능시험 마친 고3 수험생들 문화공간으로 오세요."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성적이 발표되려면 한달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고3 수험생들은 아직 대학입시의 스트레스에서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갑자기 다가온 자유를 주체할 수 없어 탈선에 빠질 수도 있다. 또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자녀들이 늦게라도 들어오면 혹시 탈선에 빠지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이제 이런 고민은 안해도 된다.

교계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단체들이 고3 수험생을 위해 댄스, 영화, 서예, 예절, 참선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고교시절의 마지막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목동 청소년수련관은 12월 23일 '고3을 위한 스트레스 파티'란 주제로 수련관 강당에서 노래와 댄스 공연대회를 연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악과 풍물놀이를 비롯해, 그룹사운드, 밴드공연, 서울시내 방송동아리들의 방송제 등도 함께 펼쳐져 그동안 수험생활로 지친 고3 수험생들의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열린청소년상담실은 대학입시로 인해 심신의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 12월 한달동안 불교기초교리강좌와 참선교실 및 달동네 자원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디지털 청소년 법당에서 홍자운 법사의 지도로 열리는 '참선교실'은 아직 시작도 안했지만 신청자가 줄을 이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댄스·영화·참선교실 열어
스트레스 풀고 탈선 예방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는 명상프로그램, 힙합페스티벌, 전통음악 강좌 등을 개설해 놓고 고3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사랑방에서는 랩파티, 생일파티, 춤파티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호응이 좋다.

이외에도 서울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서예교실이 열리며,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홈페이지 제작법을 알려준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고3생 위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주 최	전화번호	프로그램명	일 지	내 용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5	고3 스트레스 파티	12월23일	댄스, 풍물, 노래 경연대회
디지털열린청소년상담실	(043)257-0807	고3 수험생 심신안정	12월	불교기초교리 및 참선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	(051)868-0750	문화강좌	12월	힙합댄스, 명상체험 강좌
서울청소년수련관	(02)2267-2111	서예교실	12월1일~21일	경전 및 서예지도
경창청소년수련원	(02)779-4900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	12월26일~29일	공동체놀이, 민속활동
보라매청소년수련관	(02)834-6413	영화감상 제대로 하기	11월 27일~12월8일	영화감상 기초이론 강의
노원청소년수련관	(02)3391-4141	홈페이지 제작 강의	12월8일까지	홈페이지제작 방법 강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02)679-9200	청소년 입체 문화체험	12월1일~24일	영화, 음악 미술 특강

주부 신행담

기도하며 사는 삶 ㊦

남편의 49재를 명진 스님에게 부탁했다. 평소 남편이 존경하던 분이라 스님이 극락왕생을 축원해 주면 남편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49재를 지내러 법당에 들어가기 전까진 해인사 곁에 살면서도 삼배조차 올려보지 못한 내가 재를 지내는 동안에는 무엇에 이끌렸는지 잘 모르지만 수많은 절을 올렸다. 아마도 절을 올릴 때마다 잡념이 사라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절을 많이 하니까 몸은 힘들어 속 늘어졌지만 땀방울을 걷어내니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수행의 맛을 알았기 때문일까. 49재가 끝난 뒤부터는 법당을 찾는 시간이 잦아졌다. 나는 해인사 앞에서 여관과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틈만나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10분 거리에 있는 해인사 경내를 산책삼아 올라다녔다. 특히 나는 법당보다도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판전을 찾아가 참배하는 것을 좋아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부처님말씀을 목판에 새긴 조상들의 불심을 생각하면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많은 위안이 됐다. 오랜 인고의 세월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여여하게 관전을 지키고 있는 경관들을 나무 창살 사이로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다 보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힘과 용기가 생겨 좋았다.

관전을 내려오다 듣게되는 스님들의 염불소리도 그때부터는 대중가요의 노래보다 더 감미롭게 내 마음속을 파고 들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커져 외롭고 괴로운 마음이 들때마다 이렇게 해인사 법당과 판전을 찾아가는 일은 자연스럽게 반복됐다. 가만히 방에 누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전생에 불가와 지중한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어릴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내가 이제는 부처님이 없으면 삶을 살아갈 용기가 안나니 말이다.

이제는 항상 여관이나 식당에서 일을 할 때도 염주를 손에 걸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또 밤에는 틈나는 대로 〈금강경〉과 〈천수경〉 등 경전을 독송한다.

이를 본 손님으로 오는 스님이나 불자들이 불심이 대단하다며 자주 찾을 정도로 이제는 제법 불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집에 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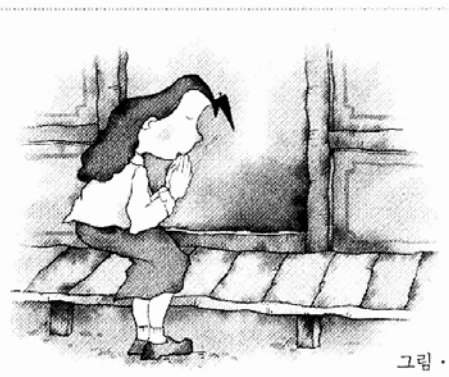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최선 다해 살자' 힘과 용기 생겨

온 친구나 친척들이 아직은 그래도 젊은데 이런 산중에 살면 외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나는 'NO'라고 일축해 버린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부처님이 지척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해인사로 들어와 살게 되는 인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요즘은 백련암에 올라가 성철 스님의 유훈을 느끼며 용맹정진도 하고 내려온다. 사업을 하기에 철야 정진은 못하지만 절하고 난 뒤에 느끼는 환희심이 좋아 독송보다도 절을 많이 하려 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고비를 넘긴 것 같다. 모든 것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얻은 가피라 생각된다. 남은 생도 수행 정진을 통한 보살행을 많이 닦아 다음생엔 수행자가 되겠다는 큰 원을 세워본다. 〈끝〉

전혜진〈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⑦

■ 손의 청결과 건강

손의 청결은 건강과 직결된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손을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을 열 때, 밥을 먹을 때, 버스나 전철을 탈 때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후에도 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손은 수많은 병원균의 온상이자 매개체가 된다. 식중독 집단 감염의 대표적 원인도 요리하는 사람의 비위생적인 손이다.

손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으로는 감기, B형 간염, 유행성 결막염, 식중독 따위가 대표적이다.

'감기'는 너무 흔해서 병으로도 여기지 않지만 독감, 폐렴,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등으로 전이되면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요즘 감기는 주로 사람과의 접촉에 의해 호흡기로 감염되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손을 씻어야 한다.

'B형 간염'은 간세포의 파괴에 의한 간 기능의 저하를 부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자주 손을 씻어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건이나 면도기의 공동사용, 술잔돌리기도 금물이다.

감기·간염 막으려면
외출후 꼭 손 씻도록

'유행성 결막염'도 더러운 손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특히 강하므로 집안에 발병자가 있을 때에는 수건이나 물컵은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이야말로 전염의 주원인이 더러운 손이다. 청결한 손으로 요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고, 대중 음식점에서 주는 물수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손, 자주 씻을 수록 좋다.

불교학교 선생님의 '참회와 발원'

불레포 12월 9~10일 지도자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이하 불레포)는 어린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겨울불교학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불레포는 12월 9일부터 1박2일간 조계사에서 '참회, 발원, 그리고 회향'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마련한다.

특강과 실기교육 등으로 나눠 열리는 이번 교육에서는 노래, 춤, 만들기, 놀이 등 겨울불교학교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실무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체계적으로 익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이론보다는 실기 지도의 비율을 늘려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포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아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각 사찰 유치부 교사를 비롯해 군종병들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찬불가 및 게임 노래, 김세은(피아노강사) △레크댄스 등 춤, 조형준(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불교공예, 이기태(한국전통등연협회 회장) △놀이, 이성훈(선재이벤트 실장)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5천원이며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 (http://cafe.daum.net/BURUNA). 접수마감은 12월 3일까지다. (02)738-7860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동아리 I·W 댄스대회 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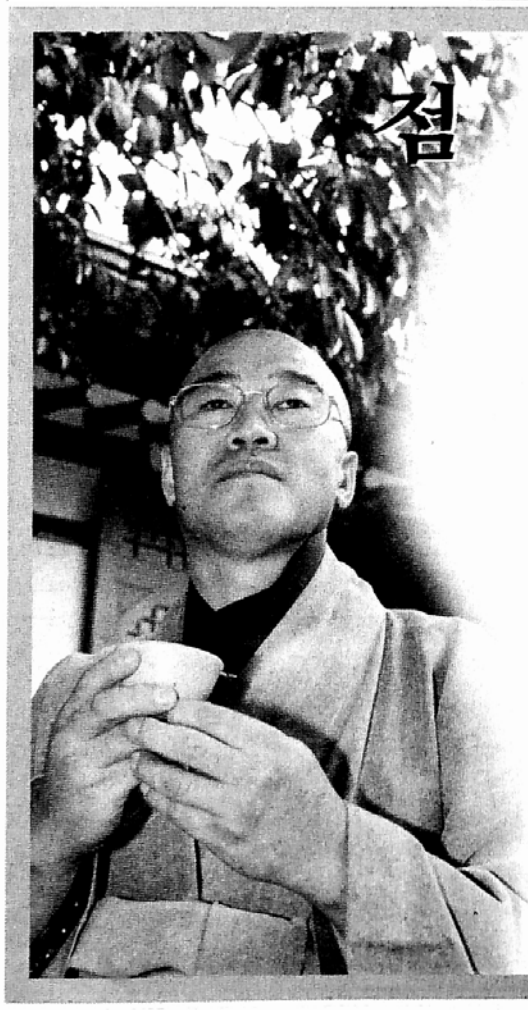
목동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I·W는 12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열린 '서울 유스챔피언대회'에서 그룹댄스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은상을 차지한 I·W는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학교 2학년때부터 활동하며 각종 지역대회나 교계 행사 때 다수 출연 및 수상한 경력이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사)한국청소년마을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내 청소년 동아리 총 22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12월 18~23일 만화축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12월 18일~23일 '2000 청소년 만화축제'를 연다. 이에 앞서 수련관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극화, 카툰, 캐릭터, 에니메이션 등 4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공모한다. 만화축제 기간중에는 △만화작가와의 만남 △만화벽화그리기 △댄스·노래 공연 등의 부대행사도 열린다. (051)868-0750

진선여중 노인 김장 담가

진선여중은 24일부터 27일까지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연화학생회와 학부모 등 40여명이 모여 담근 김장 김치는 포장해 수서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됐다.



찰 대 법 회 占察大法會

어둡고 고통스런 현실을 점찰 기도로 밝게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개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그것은 무형 세계(無形世界)와 유형 세계(有形世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밝힌 사상이 점찰 사상으로서 『점찰업보경(占察業報經)』에 담겨져 있다. 점찰 사상은 지나온 세상을,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이 점찰 사상은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중기까지 찬란하게 꽃 피어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 중기부터 사라진 점찰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20여 년 간 은거하며 수행을 하고 확철대오하여 세상에 나오신 설선당 무산(蕓禪堂 撫山) 스님께서 기도 법회를 열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앞날에 전개된 운명을 알고 가야 할 것이다. 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참 불법을 깨닫고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갑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운명의 업(業) 속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은 어떤 것인가?

· 왜 못 사는가? / ·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 · 왜 계속하여 아픈가? / · 왜 불구가 되는가?

· 왜 단명하는가? / · 왜 남녀가 부부로 만났다가 쓰라린 이별을 하는가? / · 왜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는가?

본인의 운명(業)이 나쁘다면, 자식의 운명이 잘못되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의 운명(業)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점찰기도 수행이다.

3일 기도, 7일 기도로 앞날의 운명이 훤하게 보일 것이다.

기도법회 문의 : 경덕사 종무소 (054)745-0527

大韓佛教曹溪宗 景德寺 海會禪院
경북 경주시 인왕동 129번지

會主 蕓禪堂 撫山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 연합뉴스
- 찻잔 속에 詩가 있고 詩 속엔 禪이 있다 – 문화일보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 국제신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선국판 양장/272쪽/값15,000원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TEL. 733-4277(代) FAX. 733-4279 명상